주체성의 점화를 끄는 메타생각

(욥기 42:1~17)

1.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2.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3.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4.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5.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6.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주체성의 점화를 끄는 메타생각>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주체성의 점화를 끄는 메타생각'

요즘 전기자동차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휘발유차와 디젤자동차들이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엔진이 가동되어야 하고 엔진에는 점화장치가 필요합니다. 제가 독일에서 유학할 때에는 자동차를 직접 수리했었기 때문에 점화플러그를 직접 교체한 적도 있었습니다. 점화플러그는 엔진 실린더 부분에서 불꽃이 튀게 하는 장치로서 실린더 안에 기름이 분사되면 전기로 불꽃을 일으켜 폭발하게 합니다. 휘발유 엔진에는 불꽃점화방식이 쓰이고, 디젤 엔진에는 압축점화방식이 사용됩니다. 압축점화방식은 엔진 내에서 공기를 어마어마한 힘으로 압축하여 불꽃을 일으키는 방식입니다. 공기를 어마어마한 힘으로 압축하여 순식간에 온도가 500도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에, 디젤 연료를 분사하면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노심초사(勞心焦思)"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앞서 하마를 비유로 하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태연자약하고 유유자적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리시며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연자약함과 유유자적함의 반대되는 상태가 노심초사입니다. 이 단어를 잘 들여다보면 일할 로(勞), 마음 심(心), 탈 초(焦), 생각 사(思)가 있습니다.

즉 끊임없이 마음속으로 애를 쓰며 속을 태운다는 뜻입니다. 속이 새카맣게 탈 때에는 생각이 엄청나게 가동되는 중이고 생각의 점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판단

이 필요합니다. 판단은 옳고 그름을 가늠케 하는 정신작용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주체성이 활성화되는 상태입니다.
결국 노심초사는 자동차를 쉬지 않고 일주일 내내 굴리듯이 생각이라는 엔진을 점화시켜서 풀가동하는 셈인데 새카맣게 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체성의 핵심인 생각은 마치 자동차의 엔진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점화시키며 끝없이 움직이게 하는 것이 결국은 불신앙이고 욥기서가 경계하는 주제입니다.
욥기서는 인간에게서 생각이라고 하는 엔진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점화될 것임을 경계합니다. 생각이라는 엔진을 가동시켜서 주체성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끄는 것입니다. 이것을 끄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메타생각입니다.
'메타(meta)'는 무엇인가를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메타피직스(metaphysics)'라고 한다면 물질계를 초월한다는 뜻이므로 형이상학이라고 풀이 됩니다. 메타생각은 생각의 엔진을 초월하여 위에서 바라보는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가동중인 생각을 초월하는 능력이 없다면 욥기서가 말하는 귀한 복음적 은총들은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생각은 곧 주체성이고 이것이 곧 욥기서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주체성 앞에서 나의 주체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꺼야만 합니다. 욥에게 임한 재앙을 넘어서는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나의 주체성을 꺼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더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그 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결정하시고 허락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전 과정은 참혹하고 극한의 고통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재판을 했지만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하심을 따라서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도록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욥기의 주제는 내가 당면한 상황과 직면한 환경적 여건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안 좋고 참혹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체성을 인정할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2절에서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라고 욥이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못 이루실 것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임한 재산 건강 자녀 아내 친구들의 문제와 연관되어서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알았지만 그 이유에 대해 납득하고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욥은 지금보다 더한 재앙이 내리더라도 하나님께는 실수나 잘못이 없으시고, 죄인에게 추궁을 받거나 의심 받으실 이유가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빗대어 말하자면 불치의 암에 걸렸어도 하나님의 주체성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치병에 걸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합니다. 욥은 당연히 재앙이 있을 수 있고 그보다 더한 재앙이 내리시더라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정의로우심에는 문제를 제기할 수 없음을 몰랐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리는 자가 무지한 자인데 욥이 그렇게 무지한 자였습니다. 재앙이 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주체성을 인정하며 살았습니다. 재산이 많이 늘어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여겼고, 많은 자녀가 생겼을 때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다 거두어가시자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여기면서도 마음은 고통에 짓눌렸습니다. 고통에 짓눌리던 마음에는 드디어 주체성의 점화가 일어나면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라고 하는 생각이 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욥은 이어서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라고 말합니다. 깨달음과 말함과 스스로 안다는 것과 헤아린다는 것이 결국 주체성이 움직였음을 뜻합니다.
앞서 불꽃점화장치와 압력점화장치의 두 가지 점화장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엔진이 점화되어 가동이 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본래라면 우리는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는 생각의 엔진이 결코 가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체성의 그물망으로 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점화되고 주체성이 활성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체성의 그물망을 태우는 것이고 그물망에 구멍을 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의 주체성을 인정하다가 자신의 주체성을 가동시키게 된 원인은 고통의 압력 때문이었습니다. 디젤자동차가 공기를 받아들여서 압축시키면 온도가 500도까지 올라가고 거기에 디젤이 분사될 때에 점화가 가능해집니다. 우리의 생각의 엔진도 현실적인 어려움에 의해서 압박을 받을 때에, 압력점화장치처럼 압박은 열로 변하며 주체성에 점화를 시킵니다.

오늘 본문이 재미있는 점은 4절의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말함으로서 3절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라는 말과 대비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은 자신의 주체성에 대한 표현의 회개였습니다. 욥은 자신보다 악한 사람들조차 평안하게 살다가 죽는데, 자신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기에 이런 재앙을 당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자신의 주체성을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4절은 이제 하나님을 1:1의 상대자로 마주대하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일하심을 인정하긴 하였으나 하나님과 마주대하지는 못했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을 상대자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

께 묻겠사오니’라는 말은 이제 내 생각의 엔진을 완전히 끄는 것이고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받아서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욥은 재앙으로 인해 자신의 주체성을 점화시키게 되었지만 그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상대자로 모시고 그 뜻과 계획을 수용하겠음을 밝힙니다. 그리고 5절에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는 말을 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은 곧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1등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아내도 있고 조카 롯도 있고 재산도 있었지만 마음의 시선의 조명이 하나님만을 비추었다는 것입니다. 욥이 ‘주를 뵈옵나이다’라고 고백한 것도 마찬가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에서 1등이 아니면 뵐 수가 없습니다. 돈을 1등으로 여기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뵐 수는 없습니다. 세상 것들을 1등으로 보는 가운데 보려하는 하나님은 모두 내 스스로 만들어낸 우상화 된 하나님일 뿐입니다. 건강을 영광스러운 1등으로 본다면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보아도 뵐 수는 없습니다.

욥에게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체적인 일하심을 인정했지만 마음에는 자연스럽게 재산과 자녀 등의 세상 것들을 담을 수밖에 없었고 당연히 하나님을 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시자 이제는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것이 모두 사라지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등이 되실 때에만 보이십니다. 욥에게서 모든 것들이 제거된 후에 욥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자 욥은 왜 그토록 극심한 재앙을 주시며 소중했던 모든 것들을 가져가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1등으로 보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1등으로 보이는 것을 담고 모시게 됩니다. 이제 욥은 하나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져가시는 재앙과 고통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효과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을 때에 욥에게서 모든 것들을 가져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죽게 됩니다. 내 마음에 1등으로 보이는 세상 것들은 불꽃점화장치가 되어서 생각을 점화시킵니다. 재산과 돈과 자녀와 건강 등의 가치가 있는 것들이 우리의 주체성을 점화시킵니다. 욥은 비록 이러한 것들을 마음에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점화될 때마다 하나님의 주체성을 인정함으로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앙의 압력을 가하심으로 주체성이 활성화됨을 통해 욥의 죄악 됨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담기도록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소중한 가치에 연관될 때에 생각을 점화시킵니다. 이럴 때에 메타생각이 필요해집니다. 돈이라는 가치에 대해 생각을 불태우게 하는 나를 위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돈 문제에 빠져있고, 자녀 문제에 빠져있다'라는 것을 보아야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하나님의 주체성의 그물이 불타서 구멍이 난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생각의 시동을 십자가에서 끌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의 주체성은 이 세상에서 소중한 것들과 관계될 때마다 점화되고 고통스러운 현실이 주어질 때에도 점화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메타생각을 발동시켜서 그러한 생각을 하는 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생각의 엔진의 활성화 상태를 바깥에서 바라보는 위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생각이 돌아가면 하나님의 주체성의 그물은 불타버림을 알고 이렇게 노심초사하는 나의 생각 전체를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생활화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지 못하는 이유는 돈과 같은 세상의 가치에 생각이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에서 빠져나와서 나 자신이 돈에 매여 있음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계속될 때에 태연자약 유유자적의 삶은 상실되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붙잡게 하는 메타생각이 필요합니다. 생각 위에서 바라보는 메타생각이 없다면 십자가를 붙잡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매번 세상 문제에 끌려 다니면서 하나님의 주체성의 그물망에 불을 지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지 않아도 오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그러나 나의 주체성이 불타오르면 하나님의 주체성을 태우고 있는 한 하나님을 뵐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불러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주체성이 활성화되어 돌아갈 때에 하나님의 주체성이 활성화 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기서의 주제입니다. 이 세상의 고난과 가치에 의해서 반복하여 점화되는 생각의 엔진을 메타생각을 통해 관찰하고 십자가를 붙잡아서 꺼야만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메타생각을 유지하므로 십자가가 한 순간도 우리의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